

#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 이벤트 풍성

익산아트센터서 30일까지 진행... 관람객 대상 스탬프투어·공방·카페 체험 쿠폰 증정 등 진행

익산시가 원도심인 중앙동 차킨로드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상권·문화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展)'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은 오는 30일까지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 바이론(이각모자) 등 하립그룹 김홍국 회장이 소장한 나폴레옹의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익산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특별전 관람객을 대상으로 중앙동 관광지를 소개하고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 '스탬프투어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중앙동 대표 관광지인 △익산아트센터 △익산근대역사관 △익산청년몰 △익산글로벌문화관 △익산홀로그래픽체험관 등 5개 지점 중 3곳 이상을 방문해 도장을 획득하면 된다.

스탬프투어를 마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인증사진을 올린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1일 선착순 5명에게 마뽀카링을 증정한다.

또한 나폴레옹 전시와 연계해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공방과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권을 증정한다.

할인권은 카페청가람, 카페탑앤옹이, 노작목공방, 모꼬지공방, 도자기 체험공방 토란 등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

5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방에서는 나폴레옹 모자, 열쇠고리,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카페에서는 나폴레옹 특별전 기념 음료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아울러 나폴레옹 황제의 바이론(이각모자) 촬영 후 익산역 앞 계화림을 방문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계화림은 (썬)하립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닭구이 전문점으로 익산시와 상

생협력에 따라 당일 하립에서 도축한 신선한 닭고기를 사용해 음식을 판매한다. 시 관계자는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 관람객들이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벤트를 통해 체류시간이 증대되고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촉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베트남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무안공항 입국 베트남 관광객 대상 환대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호남권 지역관광협의체와 함께 새벽 무안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베트남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환대캠페인을 지난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호남권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김민수), 전남관광재단, 광주광역시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무안공항과 공동으로 6일 오전 7시부터 무안국제공항 1층 입국장에서 추진했다.

환대캠페인은 전북자치도를 찾는 베트남 관광객 한분 한분 소중한 분들을 인식해 드리고,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이미지를 선사해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관광객 90명에게 웰컴키트, 태극선 부채 등과 함께 꽃다발을 증정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2월 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호남권 관광협의체를 통해 발굴



된 베트남 관광객 대상 무안공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의 대표 관광자원을 연계한 첫 전세기 관광상품을 기념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태권도, 한식, 한복 등 K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고 호남권지역관광협의체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무안공항을 통한 전세기 관광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환대캠페인을 통해서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환대 메시지를 전달하고, 호남권 지역관광협의체와 함께 2024년 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한벽문화관, 우수성 인정받아

KoCACA 아트페스티벌 우수사례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전주한벽문화관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KoCACA 아트페스티벌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 4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열린 KoCACA 아트페스티벌 우수사례발표대회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닌 문화회관을 발굴하고 우수 경영사례를 공유하며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한벽문화관은 문화예술 가치 창출과 공유,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과 관련하여 '지역, 문화예술로 협력과 화합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예선은 서류심사로 진행되었으며, 본선에서 남동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파주도시관광공사, 성동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남양주시청 다산아트홀, 함안문화예술회관이 올랐다. 대회는 15분간 사례발표로 진행되었으며, 교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주한벽문화관은 '전주마당창극 공연', '우수작품시리즈', '라이징스타시리즈', '공연활성 무대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소용돌이 안정적인 실현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한벽문화관 김철민 관장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우수한 사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지역 예술인 및 단체와의 소통과 협업이 말로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현재 문화관은 '전주마당창극 공연'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 문화예술인과 협업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양질의 콘텐츠로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우수작품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라이징스타시리즈'를 기획해 차세대 문화예술인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연활성 무대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 및 단체와 소통하며 안정적인 실현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한벽문화관 김철민 관장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우수한 사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지역 예술인 및 단체와의 소통과 협업이 말로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남원시 창작웹툰 '향단연' 카카오페이서도 만나다

남원시의 창작웹툰 '향단연'이 카카오페이서에서도 정식 연재가 시작됐다.

향단연은 지난 4월 카카오페이서 연재를 시작으로, 구독자로부터 10점 만점에 평점 9.9점과 호평을 받고있는 작품으로, 총 54화의 분량으로 1년간 매주 수요일에 1화씩 무료 공개한다.

향단연은 남원시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춘향전'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로맨스코미디 장르물로, 현대의 여주인공이 우연한 사고로 춘향전 속의 '향단'에 빙의하여 사또 변학도로부터 춘향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전개되는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웹툰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 청소년의 장학사업에 사용된다.



/남원=김기주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전시홀 음악회' 익산서 개최

국립익산박물관 로비서 15일 진행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율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함께하는 '전시홀 음악회II'를 오는 15일 오후 2시 로비에서 개최한다.

지난 3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재학생들의 금관 5중주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라데츠키 행진곡', '넬라 판타지아',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을 트럼펫, 호른, 트롬본 등의 금관 악기로 연주할 예정이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다섯 개의 금빛 관들이 빛어내는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며, "전시홀 음악회는 앞으로도 매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의적인 예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 예술대학이다.

전시 및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https://iksan.museum.go.kr/>) 및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iksan.museum.go.kr/) 및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